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활동이 생애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Patterns of Elderly Leisure Activities
and Their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원광대학교 가정학과
박사과정 김애련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전임강사 한내창

Dept. of Home Economics, Wonkwang University

Doctoral Course : Ae Ryun Kim

Dept. of Wonbuddhism, Wonkwang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 Nae Chang Han

〈목 차〉

- | | |
|------------|---------------|
| I. 이끄는 말 | IV. 조사 결과의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조사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paper has two purposes. The one was to find empirical patterns of rural and urban elderly's leisure activities, and the other was to test the effects of elderly's leisure activities on life satisfaction. The data were collected for 319 respondents aged over 50s who resided in Jeonbuk rural and urban areas.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e found ten patterns of leisure activities. In addition, we conduc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test net effects of those leisure activities on life satisfac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even no one pattern of leisure activities significantly influences the elderly's life satisfaction, controlling for social correlates (consisted of social structural, family relationship, personality, and socio-economic · demographic variables). Rather, the respondent's level of health, level of economic status, and positive relationship with adult children have significant net effects on

respondent's life satisfaction.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existing empirical studies might be spurious. We recommend that the further studies should conduct survey and analyze the data for affluent elderly residing in more urbanized areas.

1. 이끄는 말

여가의 개념이나 활동은 산업화 및 상업화와 함께 등장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Hemingway 1996). 산업화에 따라 직장은 가정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였고(Weber 1946), 직장에서의 작업들은 본질적으로 소외적 성격을 띠기 시작하였다(한내창 1984). 직장에서의 분업화, 권력의 중앙집중화, 형식화 등의 경향은 과학적 경영 운동(Scientific Management)을 촉진시켰고, 이는 작업 과정과 생산물, 동료,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를 가져왔다(K. Marx의 아이디어: Coser 1992). 사람들은 분절되고, 이차 집단화되며, 도구화된 작업장에서 소외감을 경험하면서 일 그 자체를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 일은 자본가의 영역에 속한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사람들은 점차 노동 이외의 것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끼고, 그것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시장의 상업화, 상품화는 노동시간 이외의 시간을 사용하려는 노동자들의 활동들을 소비 활동으로 바꾸고 이러한 소비 활동들을 상품화하기 시작하였다. 여가 활동의 상품화는 노동자들에 대한 또 다른 사회 통제 수단이 되기에 이르렀다(Hemingway 1996). 다시 말하면, 활동들이 상품화되기 시작함에 따라 모든 활동들은 자연 많은 비용을 수반하게 되고, 보다 많은 자유 시간 활동들(free time activities)은 더 많은 노동의 필요성을 자극시켜 노동자들로 하여금 여가를 향유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향유하고 싶은 것을 가지려면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새로운 사회 통제 기제로써 여가는 진정한 의미의 해방(emancipation)과 자아 성취(self-actualization) 보다는 또 다른 소외된 소비 활동

이 되게 되었다.

여가 활동들은 노동 이외의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말한다. 이런 활동은 한편으로는 '생활의 질(quality of life)'을 향상시켜 주는 역할(Iso-Ahola & Jackson 1994; Kelly 1993)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즉 여가 활동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관심 가진 것을 즐기고'(Clarkberg, Stolzenberg & Waite 1995) 자신의 본원적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활동들이 상품화됨으로써 금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제한적 접근만을 허용하고, 또 수동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운 활동이 되기 시작한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낙후된 기능적 역할 때문에 사회적 활동 영역으로부터 배제된 노인들의 증가는 노인들의 활동을 재조명해 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도구적 활동이 상실된 그들에게 생활 자체가 빈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그들의 시간 중 많은 부분은 상품화된 활동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비상품화된 영역은 점차 축소돼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 비상품화된 영역조차도 공동체 의식의 약화, 개인주의의 팽창으로 말미암아 노인들에게 점차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주체할 수 없는 시간의 홍수와 값비싼 활동 비용의 조건과 결합되면 노인들은 강요되고 만성화된 무료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재생산 또는 투자 형식으로서의 청장년층 여가와와는 달리(박재간 & 김태현 1986), 노년층의 여가는 재생산과 투자의 가치도 상대적으로 적고 여가 비용도 마음대로 지불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의 여가에 대한 접근 방법은 새로운 시각을 요구한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낙후된 기술과 연령 때문에 상업화, 상품화된 사회 속에서 생산 활동으로부터 소외

된 계층으로서 노인들이 어떤 여가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문헌들로부터 거론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여가 활동들을 설문지에 포함시키고, 이 설문지를 노인 인구에 적용함으로써 그들의 여가 활동 유형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얻어진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노인들의 여가 유형을 요인 분석 방법에 의해 파악해 보고, 각각의 유형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인구학적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들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이다. 아울러 다른 사회인구학 및 사회경제학적 공변인(correlates)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여가 활동이 노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순효과(net effects)를 검증해 볼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여가의 정의

Dumazedier(1980)는 여가(leisure)가 자유 시간(free time)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 시간이라는 대체로 작업 시간이 아닌 시간을 말하는데, 이 자유 시간에 여가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여가 활동이 아닌 많은 다른 활동들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여가가 단순한 시간의 개념을 떠나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성격들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여가는 '의무로부터의 해방'의 성격을 갖는다. 의무라 함은 직업적, 조직적, 제도적(직무, 연구, 가족, 종교 등) 관여로부터 개인에게 부과되는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적 활동으로부터 면제된 상태가 여가의 제 1 조건이 되는 것이다. 둘째, 여가는 '이익적 동기가 없는(disinterestedness)' 활동이어야 한다. 상업적, 공리적,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육체적, 예술적, 지적, 사회적 능력을 사용하는 활동은 여가 활동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좋아서 아무런 댓가도 바라지 않고 몰입하는' 그런 활동이 여가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여가 활동은 '만족을 추구하는 행동(pleasure-seeking diversion)'이다. 자기 만족, 기쁨, 환희가 여가 활동의 최종 목

표이다. 어떤 도구적인 목적도 허용하지 않는다. 오직 표출적인 목적(expressive goal)만을 가진다 하겠다. 넷째, 여가 활동은 '전인간(whole man)을 추구하는 자아 실현'의 노력이다. 인간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분절화된 사회적 구조 속에서 통합된 인격(integrated personality)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여가 활동이라 하겠다. 이러한 여가의 네 가지 요건들은 프랑스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여 추출한 것들이다.

경험적 자료에 기초하여 여가의 개념을 추출하려는 또 다른 시도가 Allen & Chin-Sang(1990)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들은 65세 이상의 흑인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일과 여가의 심리학적 구조를 파악하였다. 흑인 여성 노인들에게 '일'이란 "① 돈을 벌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것, ② 독립하고 자활하기 위해 하게 되는 어떤 것, ③ 가족을 돌보기 위해 돈을 버는 것, ④ 생존을 위해 무언가 하는 것, ⑤ 직업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른 한편, '여가'란 "① 자유로운 시간, 즐거운 시간, '나를 위한 시간,' ② 휴식을 취하는 것, 인생을 편안하게 하는 것, ③ 일하지 않는 것, ④ 할 아무 것도 없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은 자신의 사회적 독립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하는 직업적 또는 의무적 활동인데 반해, 여가란 주로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자신이 선택한 활동 또는 무활동에 몰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여가 활동은 일의 피로감으로부터 벗어나 생태학적 리듬을 회복하고, 일상의 단조로움으로부터 새로운 내적·외적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 주며, 궁극적으로는 전인격적 자기 완성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가 활동 정의들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정의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산업화로 인해 빼앗긴 자신의 그 어떤 것을 회복하고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여러 특수 계층에게도 마찬가지로, 노인들에게 있어서 여가 활동이란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것"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시간을 채우려는 고독하고 따분한 노력"(Kelly 1993)이라 볼 수 있

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여가 활동은 자아 존중감(self-esteem)을 높여 주고, 심리적 복리(psychological well-being)를 향상시켜 주며, 사회적 통합을 제고시켜 주고, 전반적인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Hemingway 1996; Kelly 1993; Reitzes, Mutran, & Verrill 1995) 적극적이고 투자적인 노력이라 볼 수 있지만, 노인들의 여가 활동은 시간 채우기(fill up time), 또는 시간 보내기의 성격을 많이 띠고 투자적 의도가 거의 없는 자원의 투여 또는 시간 배분 노력이라 볼 수 있다.

2. 여가의 유형

여가 유형에 관한 연구는 학자마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러한 다양한 접근 방법들 몇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료 수집 및 분석의 방향을 설정하기로 한다. 먼저, Reitzes, Mutran, & Verrill(1995)은 58-64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22개 활동들에 대해 심층 전화 면접을 하고 자료를 요인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혼자 하는 활동(solitary activities),' '공동으로 하는 활동(joint activities),' 그리고 '공식적 활동(formal activities),'의 세 가지 유형을 발견하였다. '혼자 하는 활동'은 영화나 비디오 감상, 스포츠 감상, 쇼핑, 전시회 방문, 취미 활동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남성들이 선호하는 활동으로 남성들의 자아 존중감을 어느 정도 향상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으로 하는 활동'은 친구나 친척을 방문하고, 어린이와 놀아 주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하는 등의 활동으로 주로 여성들에 의해 선호되며, 여성들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식적 활동'은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교양 강좌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말하고,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접근 방법으로, Holman & Jacquart (1988)는 상호 작용 유형에 따라 여가 활동 유형을 '개별적(individual),' '공동적(joint),' 그리고 '평행적(parallel)'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이 개인들의 결혼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결

과는 '개별적 활동'이 결혼만족도에 부정(negative) 효과를, '공동의 활동'이 정적(positive)인 효과를 갖는데 반하여, '평행적 활동'은 아무런 유의미한 효과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llen & Chin-Sang(1990)은 여가의 '주관적 경험'의 측면을 강조하고 여가를 '빈 시간'이라든가 또는 '활동 유형'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거부하였다. 오히려 개인들이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여가를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여가를 세 가지 유형(두 종류의 혼자 하는 활동과 하나의 친화적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혼자 하는 활동(solitary)'은 '적극적(active)'인 활동과 '소극적(passive)'인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쇼핑, 가사 돌보기, 요리, 공예품 만들기, 정원 가꾸기, 운동, 낚시 등의 활동을 포함하고, 후자는 TV보기, 낮잠 자기, 휴식 취하기, 퍼즐 맞추기, 독서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혼자 하는 활동'과 대비되는 '친화적 활동(affiliative)'은 다른 사람 돕기, 교회나 기도회 참석, 친지나 친척 방문, 노인회관 참여, 용돈 벌기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그들은 여가는 개인들을 역할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자기 표현의 기회를 증가시켜 줌으로써 타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준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특히 '친화적 활동'이 노인층에게 갖는 의미를 강조하였다.

Iso-Ahola & Jackson(1994)은 활동들을 개인적 유형과 집합적 유형, 그리고 활동적 여가와 수동적 여가로 개념화하고, 능동적·활동적 유형의 여가가 보다 젊고 사회적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주로 선택하기 때문에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활동의 유형들을 추상적인 카테고리 분류하기보다는 중범위적 범주 체계로 분류하였다. 즉, 그들이 분류한 활동 유형들은 ① '운동 지향적 활동(exercise-oriented activities),' ② '옥외 레크레이션 활동(outdoor recreational activities),' ③ '팀 스포츠(team sports),' ④ '취미(hobbies),' ⑤ '가정에 기초를 둔 활동(home-based activities),' ⑥ '기계화된 옥외 레크레이션(mechanized outdoor recreation),' 그리고 ⑦ '기타 활동' 들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64세 이상

노인층에서 '운동 지향적 활동'은 많은 사람이 새로 시작하기도 하지만 중단하는 사람도 많다. '옥의 레크레이션'은 새로 시작하는 사람보다 끝내는 사람이 많고, '팀 스포츠'는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중단하는 사람은 매우 많았다. 그리고 '취미 활동'은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고, '가정에 기초를 둔 활동'은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다소 많았다. '기계화된 옥의 레크레이션'은 새로 시작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중단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이 결과는 연령이 높아 감에 따라 여가 활동들이 수동적이고 개인지향적이 되어 가고, 따라서 '생활의 질'을 부식시킨다는 것을 나타낸다.

Hemingway(1996)는 경험적으로 여가 유형화 논의의 시도하였다기 보다는 다소 철학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는 사회 사상의 고전들로부터 논의되어 온 합리성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도구적(instrumental), 규범적(normative), 표출적(expressive), 그리고 의사소통적(communicative). '도구적 합리성'이라 함은 행위가 공리적 목적을 가지고 추구되는 것을 말하고, '규범적 합리성'은 집단 규범에의 복종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표출적 합리성'은 어떤 도구적 목적이 아니라 자아 표현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하며, '의사 소통적 합리성'은 어떤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 가며 상호 주관적인 합의의 상태를 이끌어 가는 행위를 말한다. 그는 현대 사회에 이르러 '도구적 합리성'이 증대하여 여가조차도 '공리적 목적'을 지님으로써 진정한 '해방적'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즉, 여가 활동이 '임금 소비 활동'으로 전락하여 사회적 유대 강화와 표출적 만족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분절된 개인주의만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표출적, 규범적, 의사소통적 활동을 통해 작업장과 가정, 공동체 등에서 '사회적 유대(solidarity)'와 통합을 강화하여 진정한 해방적 자유(진정한 의미에서 여가의 목적)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여가 활동 유형화 논의들을 밑거름으로 있는 핵심적 아이디어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여가 활동을 시간 배분적 관점에서 접근해 들어가려는 개념화 내지 유형화 전략이다. 둘째, 여가 활동을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나 의미에 기초하여 여가 활동을 개념화·유형화 하는 방법이다. 셋째, 구체적인 활동에 기초하여 차원화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여가 활동에 기초하여 차원화를 시도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우리는 참여 인원(개인적·집합적)과 활동의 강도(활동적·수동적)의 두 개 차원을 고려하면서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된 거의 모든 여가 활동들을 설문지에 포함시키고, 그에 기초하여 경험적인 유형들을 파악하려 하였다.

III. 조사의 방법

1. 조사 실시 및 조사 대상자의 특성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남녀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지역은 전주, 익산, 군산, 장수군 등 도시와 농촌 지역을 포함하였다.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가지고 면접과 자기 기입 방법을 병용하였다. 조사는 1997년 4월에 예비 조사를 하였고, 본 조사는 5월에 실시하였다. 총 50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350부의 설문지 가운데 편집 과정을 거쳐 319명 사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의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 응답자가 약 51.4%이었고, 농촌 지역 응답자가 약 48.6%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38.9%, 여성이 61.1%이었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 연령층이 40.4%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9.4%, 70대가 20.7%, 그리고 80대가 9.4%이었다. 학력별 분포를 보면, 무학 및 초등 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자가 전체 응답자의 66.5%이었고, 중·고졸 학력자가 26.3%, 그리고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자가 7.2%인 것

1) 여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활력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등과 같이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말한다.

으로 나타났다. 종교별로는 종교를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이 34.5%, 기독교 신봉자가 29.8%, 천주교 6.6%, 불교 25.4%, 그리고 기타 종교 신봉자가 3.8%이었다.

2. 척도 구성

우리의 연구 목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노인들의 여가 활동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가 활동이 노인들의 생활 만족도(quality of life의 한 지표라 볼 수 있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여가 활동 유형들이 생애 만족도에 미치는 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변수들과 가족 화목도, 자아 존중감(self esteem), 통제감(locus of control), 건강 상태, 그리고 사회 인구·경제학적 변수들(성, 연령, 교육, 결혼 지위, 생활 수준, 직업)을 통제 변수로 모델에 삽입하였다.

여가 활동 척도: 여가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들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기존 경험적 연구들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활동들을 설문지에 삽입하였다(김명자 1993; 김외숙 & 이기춘 1992; 이기영 & 장윤희 1992; 이선미 1992; 이영옥 1994; 진영아 1994; 홍성희 & 문숙재 1993). 기존 경험적 연구들로부터 추출되어 망라된 활동들은 36개 항목이었다. 각각의 항목들은 Likert-Type 4점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다. 응답자들은 각각의 항목에 대해 ① '전혀 안 한다,' ② '가끔 한다,' ③ '자주 한다,' 그리고 ④ '매우 자주 한다' 가운데 하나의 응답지에 체크하도록 요구하였다. 여가 유형들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활동 문항들이 요인 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되었다.

생애 만족도(life satisfaction): 생애 만족도는 Campbell et al.(1976)의 척도를 본 조사에 맞게 약간 변용하여 사용하였다. 원래의 척도는 "...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 당신이 느끼는 만족도 정도에 가장 가까운 숫자를 골라 표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자신의 인생에 대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질문하였다. 이 질문은 ① '매우 불행하다'로부터

⑤ '매우 행복하다'까지 5개의 응답 카테고리를 가진 Likert-Type 척도이었다.

통제 변수: 사회적 지원 변수는 네 개의 하위 차원들로 분류하였는데 각각 정서적 지원(emotional support), 도구적 지원(instrumental support), 부정적 그물망 요소(negative network), 그리고 가족 관계(family relationship)이었다. 이들의 척도는 한내창·정순일(1994, 1995)의 연구로부터 차용하였다(가족관계 척도는 본 연구를 위하여 삽입한 항목). 가족의 화목도 변수는 "우리 가족은 진정으로 서로 보살핀다"는 한 개의 항목에 의해 측정되었고, 응답 카테고리는 ① '거의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③ '항상 그렇다'로 이루어졌다. 자아 존중감 척도도 단일 항목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는데, 설문 항목은 ".....님은 어디 가나 환영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였다. 응답은 리커트 타입 5점 척도 방식이었다. '통제감' 역시 리커트 타입 5점 단일 항목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다. 문항은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운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의 한 개 항목이었고, 응답은 리커트 타입 5개 카테고리로 이루어졌다. 개인의 건강 상태도 한 개 항목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는데, ".....님의 요즈음 건강 상태는 어떠십니까"라는 질문에 ① '매우 나쁜 편이다'로부터 ⑤ '매우 좋은 편이다'까지 5개 카테고리로 질문이 이루어졌다. 그밖에 응답자의 성(性), 연령, 교육 수준, 결혼 지위, 주관적으로 평가한 경제적 상태, 그리고 현재의 직업이 측정되었다.

3. 분석 방법

자료는 SPSS for Windows에 의해 분석되었다. 자료들은 먼저, 전체 변수들에 대한 빈도분포가 검토되었다. 그리고 노인들의 여가 활동 유형들을 경험적으로 분류해 보기 위해 요인분석이 이루어졌다. 요인 분석 자료에 기초하여 발견된 여가 유형들이 각각 어떤 특성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기 위해 ANOVA 테스트가 이루어졌다. 끝으로 공변인(correlates)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여가 유

형들이 생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보기 위해 다변이 분석의 하나인 다중 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IV. 조사 결과의 분석

1. 노인들의 여가 활동의 경험적 유형

우리는 기존 경험적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활동 36개 항목을 조사에 포함시켰고, 이들로부터 유형을 추출해 내기 위해 요인 분석을 하였다. 항목들은 Varimax 방식에 의해 회전되었다. 요인 분석의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두 개 이상의 요인에 부하된 항목(6개)과 어느 요인에도 부하되지 않은 항목(1개)은 변별력과 수렴도가 없다고 판단되어 제외되었고, 나머지 29개 항목으로부터 10개 요인이 발견되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요인 1'에는 5개 항목이 부하되었다. 신문·잡지 보기, 독서, 미술·음악 감상, 사진 촬영, 아동·초등생 한문 교육, 골동품·수석 채집 등의 활동으로 이들을 우리는 '교양 활동'이라 이름 붙였다. '요인 2'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집안 일'이라 이름 붙여졌다. '요인 3'은 '가족 중심 활동'으로, '요인 4'는 '정서 활동'으로, '요인 5'는 '취미 활동'으로, '요인 6'은 '관람·칭취'로, '요인 7'은 '종교 활동', '요인 8'은 '휴식', '요인 9'는 '어울려 놀기', 그리고 '요인 10'은 '부업'으로 명명되었다.

김외숙·이기춘(1992)과 이기영·장윤희(1992)는 도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자기 개발 활동, 가족·가정 관련 활동, 종교·사회 활동, 사교 활동, 소일 활동의 5가지 요인을 발견하였다. 우리는 이들이 조사에서 이용한 15개 문항보다 21가지가 많은 36개 문항들을 망라하여 조사에 포함시켰고, 이에 기초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정 지향 활동과

종교 활동, 교양활동(자기 개발 활동)이 비슷한 유형을 보였다. 소일 활동도 우리의 '휴식' 요인과 중첩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사교 활동'은 우리의 자료에서는 독립된 요인으로 부각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사교 활동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두 개 이상의 요인들에 부하됨으로써 변별력(discriminative power)이 떨어져 제외시켰다. 이들과 중첩되는 4개 요인을 제외하고 집안일, 정서 활동, 취미 활동, 관람·칭취, 종교 활동, 어울려 놀기, 부업 등 6개 요인이 추가되었다. 우리의 자료에서 발견된 10개 경험적 요인에 기초하여 다음의 분석들을 진행할 것이다.

2. 각각의 여가 활동 유형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성²⁾

먼저 활동별로 응답자들의 특성을 알아보면, '교양 활동'은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초등 학교 이하 학력자들보다 중고등학교 이상 학력자들이, 50대의 젊은 연령층이 60대 이상의 연령층보다, 건강이 좋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사람보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그리고 기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정주부나 농어축산업, 상업, 무직자들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안일 활동'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여성들이, 연령이 많은 층이, 건강이 좋은 사람들이, 부부가 함께 살지 않고 있지 않은 사람들, 무직자들이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중심의 활동'은 남성들보다 여성이, 생활 수준이 낮은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들이, 다른 직업 종사자들보다 가정 주부들이 더 많이 하고 있었다. 정서적 활동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취미 활동'은 남성, 고학력자, 건강이 좋은 사람, 기타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있었다. '관람·칭취' 활동은 남성, 고학력자, 그리고 기타 직종

2) <표 2>는 집단간 여가 활동 정도 평균 차이를 ANOVA test에 의해 검증한 결과이다. 음영이 주어진 항목은 응답자의 해당 특성별로 해당 여가 활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유의 수준은 표 아래에 제시된 것처럼 ***로 해당란에서 가장 평균 점수가 높은 집단에 표시를 하였다.

〈표 1〉 여가 활동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요인 분석 결과

문항	요인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신문, 잡지 보기	.69									
독서	.64									
미술·음악 감상, 사진 촬영	.63									
아동, 초등생 한문 교육	.49									
골동품, 우표, 수석 수집	.42									
취미·여가로 발일하기		.78								
취미·여가로 나물 캐기		.78								
바느질, 뜨개질, 수예		.66								
가족 동반 외출·외식			.67							
가족과 대화			.67							
친구·친척집 방문			.63							
서예 및 묵화				.67						
정치단체 참여 및 클럽활동				.60						
묵상, 선, 요가, 단전호흡				.58						
화초·정원 돌보기, 어항					.67					
자연보호 활동, 조기 청소					.60					
낚시, 등산					.47					
운동경기 관람 (야구·축구)						.72				
노인회관, 사회교육원의 교양강좌						.50				
TV 보기, 라디오 청취						-.50				
주일 예배, 미사, 법회 참여							.89			
불경·성경 읽기, 설교·찬송가 테이프							.86			
자원 봉사활동							.48			
낮잠								.72		
휴식								.60		
걷기, 산책, 약수터 가기								.51		
화투, 장기, 바둑									.71	
노인정, 공원, 공터 등에서 친구와 대화									.70	
부업 활동										.75
Eigen value	5.92	2.96	2.23	2.04	1.70	1.57	1.34	1.20	1.13	1.02
% of Variance	16.5	8.2	6.2	5.7	4.7	4.4	3.7	3.3	3.1	2.8

* 표에는 요인 부하치 (factor loading)가 0.40 이상인 것들만 제시하였다

* 두 개의 요인에 동시에 부하된 6개 항목은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 1개 항목 (혼자 하는 운동)은 어느 요인에도 높게 부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있었다. '종교 활동'은 종교를 갖고 있고, 건강이 좋은 사람들, 부부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휴식'은 고연령층, 무직자들에 의해

주로 취해지고 있었다. '어울려 놀기'는 남자, 60대 연령층, 무종교인들이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부업' 활동은 여성, 60대 연령층,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 가정 주부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표 2〉 응답자의 특성별 여가 활동 평균 점수(ANOVA test 결과)

(숫자: 4점 척도상 평균값)

응답자 특성		요인(여가 활동 유형)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지역	도시	2.55	1.48	2.17	1.16	1.63	1.77	1.71	2.21	1.83	1.26
	농촌	2.54	2.03 ^a	2.14	1.24 ^c	1.70	1.80	1.70	2.24	1.82	1.37
성별	남자	2.57 ^a	1.49	2.06	1.23	1.77 ^b	1.83 ^c	1.66	2.26	2.03 ^a	1.22
	여자	2.53	1.90 ^a	2.22 ^c	1.18	1.60	1.74	1.72	2.20	1.70	1.38 ^c
교육	-초등	2.52	1.88 ^a	2.14	1.19	1.59	1.75	1.70	2.25	1.82	1.33
	중고+	2.59 ^a	1.44	2.19	1.21	1.82 ^a	1.84 ^c	1.69	2.19	1.85	1.29
연령	50대	2.57 ^a	1.52	2.21	1.16	1.72	1.76	1.66	2.09	1.72	1.22
	60대	2.54	1.75	2.09	1.18	1.60	1.81	1.66	2.31	1.91 ^c	1.41 ^c
	70대+	2.53	2.04 ^c	2.14	1.26	1.66	1.78	1.81	2.34 ^a	1.89	1.35
생활 수준	하	2.53	1.59	1.85	1.13	1.47	1.68	1.60	2.12	1.69	1.31
	중	2.54	1.77	2.18	1.19	1.68	1.79	1.69	2.24	1.83	1.28
	상	2.56	1.77	2.33 ^a	1.29	1.77	1.79	1.89	2.28	1.96	1.58 ^c
종교	무	2.54	1.65	2.12	1.16	1.62	1.77	1.14	2.18	1.97 ^a	1.26
	유	2.54	1.78	2.17	1.22	1.69	1.78	1.99 ^a	2.25	1.75	1.34
건강	나쁨	2.52	1.76	2.06	1.17 ^b	1.54	1.74	1.62	2.29	1.90 ^c	1.27
	보통	2.55	1.66	2.18	1.16	1.68	1.77	1.65	2.20	1.74	1.28
	좋음	2.56 ^a	1.90 ^c	2.22	1.31	1.78 ^c	1.83	1.89 ^c	2.20	1.92	1.46
혼인	부부	2.56 ^b	1.56	2.14	1.17	1.70	1.78	1.62	2.19	1.82	1.27
	사이별	2.53	2.02 ^b	2.18	1.24	1.61	1.78	1.81 ^c	2.21	1.83	1.38
직업	주부	2.53	1.79	2.33 ^a	1.14	1.69	1.74	1.69	2.23	1.77	1.44 ^c
	농어축산	2.54	1.84	2.03	1.23	1.59	1.68	1.66	2.07	1.84	1.15
	상업	2.55	1.39	2.06	1.10	1.81	1.78	1.62	2.07	1.78	1.13
	무직	2.53	1.90 ^a	2.10	1.20	1.56	1.80	1.87	2.39 ^a	1.87	1.36
	기타직	2.60 ^a	1.46	2.18	2.29	1.83 ^c	1.96 ^b	1.56	2.27	1.84	1.37

* 집단간 평균 차이의 유의미 검증 결과(유의정도는 평균값이 가장 큰 집단에 표시)

⁂: p < 0.001 b: p < 0.01 c: p < 0.05

* 음영이 가해진 칸은 ANOVA 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

* 각 요인들의 활동

I '교양활동' II '집안일' III '가족중심 활동' IV '정서활동'

V '취미활동' VI '관람·청취' VII '종교활동' VIII '휴식'

IX '어울려 놀기' X '부업'

있었다.

응답자의 특성별로 여가 활동들을 살펴보면, 농촌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보다 '집안일'과 '정서 활동'에 더 많이 치중하고 있었고, 남성들은 '교양 활동,' '취미 활동,' '관람·청취,' 그리고 '어울려 놀기'를 즐기는 반면, 여성들은 '집안일'과 '가족 중심 활동,' 그리고 '부업'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집안일'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교육 수준이 다소 높은 사람들은 '교양 활동,' '취미 활동,' '관람·청취' 활동들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은 50대는 '교양 활동'을 즐기는 반면, 60대는 '어울려 놀기'와 '부업' 활동을 많이 하고, 70대 이상 노년층은 '집안일'과 '휴식'을 많이 취하고 있었다. 생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가족 중심의 활동'과 '부업' 활동들을 다소 많이 하고 있었다. 건강이 좋은 사람들은 '교양 활동,' '집안일,' '취미 활동,' 그리고 '종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반면,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정서 활동'을 다소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교양 활동'을 많이 하는 반면,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이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집안일'과 '종교' 관련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었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가 '가족 중심 활동'과 '부업' 활동을 많이 하고, 부직자들은 '집안일'과 '휴식'을, 그리고 기타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취미 활동,' '관람·청취,' 그리고 '교양 활동'을 다소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하여지고 있는 활동들은 '교양 활동(평균 2.55),' '휴식(2.23),' 그리고 '가족 중심 활동(2.15)'이었고, 가장 적게 하여지고 있는 활동들은 '정서 활동(1.20),'과 '부업(1.32)' 활동이었다. 그러나 많이 하여지는 활동들도 '가끔 한다'는 수준이고, 대부분의 활동들은 평균 1.70으로부터 1.93까지 분포됨으로써('1'은 '전혀 안 한다'를 의미하고, '2'는 '가끔 한다'를 의미함), '전혀 안 하거나' 혹은 '가끔

하는 정도' 수준에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었다.

3. 여가 활동이 생애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우리는 기존 경험적 연구들에서 증명되어온 명제(여가 활동이 생애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명제)를 보다 세련된 통계 방법에 의해 검증하고자 시도하였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이번이 분석(二變異 分析: bivariate analysis)을 채택하고 있어서³⁾ 두 변수간 관계의 의사성(spuriousness)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즉, 두 변수간 관계가 제 삼의 변수(선행 변수, 매개 변수, 또는 외재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검증해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사 관계의 가능성을 점검해 보기 위해, 우리는 다변이 분석 기법의 하나인 다중 회귀 분석 기법을 도입하여 여가 활동 유형들이 생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그래서 우리의 연구에서 발견된 여가 유형들이 응답자들의 생애 만족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단계별 다중 회귀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10개의 여가 유형 변수들을 모델에 삽입하여 이들이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응답자들의 생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어서 생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기존 문헌들에서 논의되어 왔던 사회 구조적 요인들(사회적 지원, 가족 환경적 요인 등)과 퍼스널리티 요인(자아 존중감, 통제감 등), 그리고 사회인구·경제학적 변수들을 모델에 삽입하여 만족도를 다중 회귀 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여가 활동 유형들이 공동으로 생애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 수 있도록 해주고(설명 변량(R²)을 통해), 또 각 변수들이 모델에 있는 다른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 어느 정도 생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주는 순효과(net effects)를 제시해준다.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1) 상관관계의 분석: 먼저, 각각의 변수들과 생애 만족도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변이(bivariate) 분

3) 여가 활동 유형들이 생애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박경숙(1996)은 ANOVA 검증음, 이선미(1992)와 진영아(1994)는 상관관계(correlation)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대표적인 이변이 분석의 예라 하겠다.

석 결과인 단순 상관계수를 살펴 보았다.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10개의 여가 유형 가운데 6개(교양 활동, 집안일, 가족중심 활동, 취미 활동, 종교 활동,

그리고 휴식)가 응답자들의 생애 만족도 점수와 유의미한 정적(positive)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이들 활동들을 많이 할수록, 응답자들의 생애 만족도

<표 3> 사회 인구·경제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여가 활동 유형들이 생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중 회귀 분석 결과

		단순상관관계	방정식 I		방정식 II	
			b	Beta	b	Beta
여 가 활 동	교양활동	.13***	.01	.00	-.63	-.06
	집안일	.13**	.02	.02	.02	-.02
	가족중심활동	.31***	.49***	.32	.17	.11
	정서활동	.09	-.07	-.03	-.09	-.04
	취미활동	.22***	.23**	.17	.11	.08
	관람·청취	.07	.15	.09	.12	.07
	종교활동	.16**	.12*	.12	.05	.05
	휴식	.16**	.10	.07	.10	.07
	어울려 놀기	.05	-.10	-.08	-.05	-.04
	부업	.09	-.07	-.06	-.03	-.02
통 제 변 수	정서적 지원	.28***	-	-	.07	.12
	도구적 지원	.38***	-	-	.00	.01
	부정적 그물망	-.22***	-	-	-.09	-.09
	자녀와의 관계	.43***	-	-	.22***	.21
	가족 화목도	-.16**	-	-	-.08	-.07
	자아 존중감	.25***	-	-	.04	.04
	통제감	-.18**	-	-	.08	-.08
	건강 상태	.21***	-	-	.11*	.13
	여자 ^d	-	-	-	.05	.03
	연령	.07	-	-	.01	.12
	교육 수준	.09	-	-	.02	.10
	결혼 지위(사·이별) ^d	-	-	-	.10	.07
	경제 수준	.27***	-	-	.28**	.19
	가정주부 ^d	-	-	-	.02	.01
	농수축산업 ^d	-	-	-	.04	.02
	상업 ^d	-	-	-	.06	.02
기타 직종 ^d	-	-	-	.25	.11	
도시 거주 ^d	-	-	-	-.08	-.05	
R ²			0.21		0.40	

d: Dummy Variable

유의 수준: *** p < 0.001 ** p < 0.01 * p < 0.05

는 높아진다.⁴⁾

모델에서 통제 변수로 가정한 14개 변수 중 명목 변인으로 측정된 3개 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통제 변수 가운데 9개 변수가 생애 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족 화목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변수들은 이론이 예측한 방향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사회적 그물망으로부터 정서적·도구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주변에 적을수록(부정적 그물망), 자녀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운명이 운에 달려 있다고 적게 믿을수록(통제감(locus of control)),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스스로 잘 산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의 생애에 대해 만족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의외로 가족의 화목도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가족의 화목도가 높을수록 만족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우리의 척도나 또는 표본 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보다 근본적인 사회 현상의 아이러니인지 보다 집중적인 향후 연구를 필요로 한다 하겠다.

(2) 다중 회귀 분석: 먼저 여가 활동이 생애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10개의 여가 활동을 독립변수로 하고, 생애 만족도를 종속 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하였다(방정식 1). 생애 만족도와 의 단순 상관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의 정도를 보였던 6개의 여가 유형 가운데서, 3개만이 생애 만족도에 유의미한 순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중심 활동과 취미 활동, 그리고 종교 활동만이 생애 만족도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교양 활동, 집안일, 그리고 휴식은 생애 만족도에 유의미한 순효과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이들 여가 유형 변수들이 생애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의사 관계인지 여부를 검토해 보기 위해 14

개의 통제 변수를 모델에 삽입하였다(방정식 II).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0개의 여가 유형 가운데 어느 것도 생애 만족도에 유의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변수들 가운데서 자녀와의 관계, 건강 상태, 그리고 인지된 생활 수준의 세 가지 변수만이 생애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자녀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건강이 좋을수록,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느낄수록 응답자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 결과는 기존 연구들에서 주장해온 여가 유형이 생애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사회적 공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혹은 매개되어 두 변수간(여가 유형과 생애 만족도간) 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타났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여가 유형이 생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의사관계라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들은 여가 유형이 생애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번이 분석을 넘어서 다변이 분석적 접근을 해야 하며, 또 생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어 온 다양한 사회적 공변인들을 통제 변수로 도입하여 통계적 통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으로 기획되었었다. 첫째는 노인들의 여가 활동 유형을 경험적으로 도출해 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경험적 여가 유형들이 노인들의 생애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해 내는 것이었다. 전자와 관련하여, 우리는 국내에서 출판된 경험적 연구들로부터 추출한 여가 행위들을 망라하여 설문지에 포함시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 10가지 유형의 여가 활동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한가지 명

4) 이 결과는 자기 개발 활동, 사교 및 단체 활동, 가족 중심적 활동, 안락한 고독 활동과 정적인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소일 활동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이선미(1991)의 연구를 대체로 지지하고 있다. 소일활동과의 부적인 상관관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여가 활동들이 생애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그녀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진영아(1994)와 박경숙(1996)의 연구도 여가 활동과 생애 만족도간 정적인 관계를 지지하고 있다.

확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도출된 경험적 유형들도 그들의 실제적인 활동 빈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즉, 발견된 10개 여가 유형들 가운데 '교양 활동'과 '휴식,' '관람·청취' 등은 '가끔 한다'는 수준이고, 나머지 활동들은 '거의 하지 않는다'의 수준이었다.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또는 '거의 하지 않는 활동' 유형들이 그들의 생애 만족도에 영향을 주리라 가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것이다. 거의 분화되지 않고, 몰입되지 않는 활동이 그들의 인생의 질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여가 활동이 생애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곳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이번이 분석에 의하면 여가 유형들이 생애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처럼 나타났지만, 다중 회귀 분석의 결과는 그 영향력의 정도가 의사 관계였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즉, 사회적 공변인들을 통제한 결과 10개의 여가 유형중 어느 것도 개인들의 생애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않았고,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 '건강 상태,' 그리고 '지각된 경제 수준'만이 생애 만족도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수준,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개인들의 생애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지, 사실상 노인들의 여가 활동은 그들의 생애 만족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는 상업화된 사회에서 노인들의 여가 활동은 그들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경제적, 생활 습관적 등의) 활발하지 못하고, 그들의 여가 활동마저도 진정한 의미에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해방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결과는 향후의 연구에 있어서 여가 유형에 대한 보다 세련된 다차원적 접근(multi-dimensional approach)의 필요성을 암시해 주고, 또 이번이 분석적 접근보다는 다변이 분석적 기법을 채용하여 가설 검증을 시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다 하겠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는 비교적 교육 수준과 생활 수준이 다소 낮은 전부 도시·농촌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도시화가 덜 되고, 생

활 수준이 다소 낮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회적 여가 활동이 전체적으로 적을 것이고, 따라서 빈약하게 이용되고 있는 여가 활동 유형들이 생애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가정하기 어렵다), 향후의 연구는 보다 도시화된 지역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여가 활동들을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설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1) 권상혁. 1992. 우리 나라 老人의 餘暇 活用 方案에 관한 研究.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명자. 1993. 여가 활동과 행복한 노후 생활의 향유에 관한 연구: 서울시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김외숙, 이기춘. 1992. "도시 기혼 여성의 여가 활동 유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61-74.
- 4) 박경숙. 1996. 농촌 노인의 사회 참여 실태와 사회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박재간, 김태현. 1986. "現代社會에서의 老年期 餘暇 生活에 관한 研究." 한국노년학 6:27-40.
- 6) 이기영, 장윤희. 1992. "도시 주부의 여가 활동 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45-161.
- 7) 이선미. 1991. 중·노년기 여가 활동 유형과 인생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이영옥. 1994. 老人의 餘暇 活動과 心理社會的 問題에 관한 研究. 대구대학교 사회 개발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진영아. 1994. 노인층의 여가 활동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한내창. 1984. 組織 構造의 認知와 疎外感과의 關係에 關한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1) 한내창, 정순일. 1994. "사회적 支援과 사회적 그물網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원불교 영산대학

- 교 論文集 2:55-92.
- 12) 한내창, 정순일. 1995. "사회적 지원이 육체적 질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歴史와 社會 14: 111-146.
 - 13) 홍성희, 문숙재. 1991. "주부의 여가 활동과 여가 제약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 153-174.
 - 14) Allen, K. R. & V. Chin-Sang. 1990. "A Lifetime of Work: The Context and Meaning of Leisure for Aging Black Woman." *The Gerontologist* 30: 734-740.
 - 15) Bergadaà, M., C. Faure, & J. Perrien. 1995. "Enduring Involvement with Shopping."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5:17-25.
 - 16) Campbell, A., P. E. Converse, & W. L. Rodgers.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17) Clarkberg, M., R. M. Stolzenberg, & L. J. Waite. 1995. "Attitudes, Values, and Entrance into Cohabital versus Marital Unions." *Social Forces* 74:609-634.
 - 18) Coser, L. A. 1992. 신용하, 박명규 옮김. 社會思想史. 서울: 박영사.
 - 19) Dickson, R. & B. Edmondson. 1996. "Golden Wings." *American Demographics*, December 1996: 47-49.
 - 20) Dumazedier, J. 1980. "Leisure." pp. 248-254,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edited by David L. Sills.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 21) Gerth, H. H. & W. Mills. 1946.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22) Hemingway, J. L. 1996. "Emancipating Leisure: The Recovery of Freedom in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8:27-43.
 - 23) Holman, T. B. & M. Jacquart. 1988. "Leisure-Activity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A Further Tes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69-77.
 - 24) Hultsman, W. 1995. "Recognizing Patterns of Leisure Constraints: An Extension of the Exploration of Dimensionalit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7:228-244.
 - 25) Iso-Ahola, S. E., E. Jackson, & E. Dunn. 1994. "Starting, Ceasing, and Replacing Leisure Activities over the Life-Spa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227-249.
 - 25) Keith, J., C. Fawson, & T. Chang. 1996. "Recreation as an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Some Evidence from Utah."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8:96-107.
 - 26) Kelly, J.(ed.). 1993. *Activity and Aging: Staying Involved in Later Life*.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27) Manrai, L. A. & A. K. Manrai. 1995. "Effects of Cultural-Context, Gender, and Acculturation on Perceptions of Work versus Social/Leisure Time Usag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32:115-128.
 - 28) Reitzes, D. C., E. J. Mutran, & L. A. Verrill. 1995. "Activities and Self-Esteem: Continuing the Development of Activity Theory." *Research On Aging* 17:260-277.
 - 29) Robinson, J. P., P. R. Shaver, & L. S. Wrightsman. 1991.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Vol. 1 in Measures of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Series*. San Diego, California: Academic Press, Inc.
 - 30) Weimann, G. 1996. "Cable Comes to the Holy Land: The Impact of Cable TV on Israeli Viewer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0:243-257.